

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 관리 '허술'

④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가 재택근무자 선정과 수익금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가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1주일간 교통약자 지원센터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각 각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센터 모범운전 직원에 대한 처우 개

재택근무자 선정·수익금 입금 지연 등 3건 부적정 사례 적발·각각주의 처분

선과 차고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재택근무(자가차고제)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평가자료 누락 등으로 선정대상자가 탈락되거나 순위가 바뀌어 공정성 훼손과 직원 불

신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초 평가에서 각각 33위, 77위, 84위를 차지했던 대상자들이 2차례 정정 작업 끝에 1위와 30위, 50위로 변경됐다.

또 현금 수익금의 경우 센터 운

영규정에 따라 이틀날 오후 6시까지 입금토록 돼 있으나 최근 3년 간 334건, 274만2000원이 최소 이틀 길게는 한달 이상 지연돼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율러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나 비공개, 부분공개 등 공개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함에도 임의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은홍 기자

일본서 돼지콜레라 발생...1992년 이후 처음

일본 기후 현의 양돈장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대응에 나섰다.

9일 NHK 보도에 따르면 기후 현에서 3일부터 8일까지 약 80마리의 돼지가 죽어있는 것이 발견돼 국가기관이 검사한 결과 1992년을 마지막으로 일본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기후현은 9일 아침부터 양돈장에서 이미 죽은 돼지 80마리를 포함해 610마리의 살처분이 시작됐다. 당국은 10일 오전 6시까지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기후현은 돼지 콜레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양돈장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를 '반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3곳의 양돈장에 출하 등을 금지했다. 또한 반출제한구역의 4 개 도시와 마을의 총 5 개소가 소독 포인트를 마련하고 축산 관계 차량의 소독 작업에 임하고 있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9일 아침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사이토 겐 농림수산상은 "돼지 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8월 1일 동북부 랴오닝(遼寧)성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당국의 차단 노력에도 안후이(安徽)성 추저우로 퍼져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 기후현에서 발견된 돼지 콜레라는 ASF가 아니라 일반돼지열병(CSF)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서 버스-유조트럭 충돌 최소 16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주 자리에서 8일 승객들을 태운 버스가 유조 트럭과 충돌해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해 16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했다고 한 아프간 관리가 밝혔다.

칸다하르 주지사의 대변인 아지즈 아흐마드 아지지는 사망자 중에는 여성 3명과 어린이 3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위중한 상태라고 아지지는 덧붙였다.

아프간에서 교통사고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과속, 난폭 운전이 원인이며 열악한 도로 여건도 교통사고를 부르는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멕시코서 집단매장된 유해 166구 발견

멕시코의 걸프 해안 일대의 베라크루스주 소속 비밀 집단매장소에서 166명의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주 검찰 수사관들이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발견된 집단 묘지중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호르헤 왕클러 베라크루스주 검찰관은 이 집단 묘지의 위치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멕시코의 마약 조직들은 이런 지하 매장터를 자주 자기네가 살해한 희생자들을 묻는데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견된 시신들은 최소 2년 전에 매장된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유해가 발굴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관들은 이 근처 밭에서 114개의 신 분증을 발견했으며 부근에는 32개의 매장 구덩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두개골 외에도 다른 부위의 유골들과 개인 소지품 등도 발견되었지만, 수사관들은 일단 한 사람에게 한 개 밖에 없는 두개골을 가지고 수를 계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베라크루스주는 제타나파와 할리스코와 마약조직들의 피투성이 혈전의 각축장이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납치와 갈취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검찰은 한 목격자가 "수백구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며 제보를 한 뒤에 이 곳을 발견했다.

수사관들은 무인기, 현장 조사, 지하 촬영용 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하의 구덩이 위치를 파악한 뒤 한달 전부터 발굴을 시작했다. 검찰은 기밀유지를 위해 실종자 가족들이 현장에 와서 무덤을 헤집고 다니거나 개인적 발굴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의 집단매장터 발굴을 안내하던 단체 소속의 실종자 가족 루시아 디아스는 검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검찰 발표후 너무 빨리 시신 발굴이 끝나거나 유해가 조각으로 파내어지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번에도 한꺼번에 166개를 한 달만에 파냈다는 것은 너무 많고 너무 빨라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경찰, 동급생 사고 사진 활용 교통안전 교육 논란

경찰이 사고로 숨진 학생의 현장사진을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에서 자료로 활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지역 내 한 고등학교에서 1·2학년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경찰은 기존의 사고 예방교육 자료에 지역 내 사고 사례와 관련 사진을 추가한 뒤,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자료에는 지난달 21일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이 학교 학생 A(17) 군의 사고 현장이 찍힌 사진도 포함됐다.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었지만 일부 학생들이 숨진 A 군의 사고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으며, 유족들에게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유족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유족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곧장 교육자료를 폐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학교 학생임을 알지 못했으며, 교육 담당자의 부주의로 빚어진 일이다"면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교육이었으며, A 군을 비방·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비닷기를 찾아온 가을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초가를 날새를 보이고 있는 9일 오후 경남 남해군 미조면 인근 비닷기에는 꽃망울을 터트린 코스모스가 성큼 다가온 가을을 알리고 있다.

이사장 아들 행정실장, 교감 폭행...교직원들 '퇴진' 요구

영암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이사장 아들인 60대 행정실장의 여동생인 교감 폭행사건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의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교직원들이 행정실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영암 A중·고교 교직원들은 지난

주장했다.

늦어지는 결재로 학교시설 관리 및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자신의 허락없이 못 하나라도 박으면 질타와 모욕적인 언사로 학교 근무를 고민해야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학교법인은 지난 4월 전남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학교발전기금 운영과 급식경비 과다 징수

로 폭행해 여동생이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면서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피투성이가 된 교감이 병원으로 가기 위해 주위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으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행정실장은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차마 눈뜨고볼 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교직원들은 전했다.

한 교직원은 8일 "행정실장이 부임한 이후 지난 8년간 교직원과 학생들의 피로감은 누적돼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면서 "불안한 학생과 여선생님들은 집단금지신청을 논의할 정도로, 행정실장의 퇴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학내 폭행사건 직후인 지난 4일부터 해당 학교에 감시인력을 파견해 폭행과 갑질문제, 학교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지역신문에 광고...부당 업무·폭언 등 갑질 일삼아

전남도교육청 감사서도 학교운영 비위 무더기 적발돼

7일 지역신문에 부당한 업무와 폭언 등 갑질 행태를 일삼는 김도(60) 행정실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행정실장은 제단과 학교의 행정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요구 및 교직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물며 정규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매우 불량한 근무태도로 학교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등의 부적정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또 기숙사 보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위발레가 특실 거리고 벽사이에 버섯까지 자라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해 있고, 최근 태풍 솔리가 강타할 때에는 기숙사 비더미 물바다로 변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학생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일 행정실장이 여동생인 교감을 학내에서 주먹 등으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할 때, 자발적으로 응진 민력어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 [고객센터 1577-1000]